

서산 천수만 겨울 철새 맛이 ‘탐조투어’ 운영해

서산시가 오는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매 주 주말 ‘천수만 철새 탐조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서산 천수만에서 진행되는 이번 탐조투어는 철새들의 생태와 군무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다.

탐조투어는 운영 기간 주말 1일당 3회 운영되며, 서산 천수만 A지구 및 간월호 일원에서 1시간 30분 코스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해설사와 함께 버스에 탑승해 코스를 이동하며 철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까이서 겨울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

천수만생태관광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탐조투어 희망자는 서산버드랜드 누리집에서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1인당 1만 원이며, 서산버드랜드 입장권을 제시하면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천수만 철새 탐조투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수만생태관광협회의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김만석 천수만생태관광협회의 회장은 “탐조투어에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도내 대학들과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충북도는 오는 11월 4일(화) 충청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5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학생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도내 체류 외국인에게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와 충청대, 강동대, 충북도립대, 충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주최하며, (재)충북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채용박람회에는 반도체·화장품·의료기기 등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도매업, 음식업 등 총 4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학생, 거주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모두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찰청,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도내 외국인지원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며 현장에서는 참여기업과의 1:1 대면 면접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 및 비자상담, 외국인 취·창업지원, 생활법률 상담 등 정책 지원 홍보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접클리닉, 이력서 사진 촬영, AR·VR 직업체험, K-Play 체험(공기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통합정보 플랫폼 ‘스터디인충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9월 수출 호조…무역수지 1위 견고해

9월 수출 103억 달러로 월별 역대 2위 기록…반도체 등 주력 품목 견인



충청남도가 세계적인 통상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수출 지원정책과 주력 산업의 선방을 바탕으로 전국 무역수지 1위와 수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충청남도 수출입 동향 보고’에 따르면, 9월 수출액(누계)은 688억 달러, 수입액(누계)은 283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누계) 405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9월 수출은 103억 달러로 2022년 3월 109억 달러 이후 월별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9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초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액은 9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수입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28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405억 달러 흑자로 전국 1위를 유지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회복이 맞물리면서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디스플레이는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

하며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반도체와 에너지 수출 호조가 이어져 안정적 성과를 기록했다.

중국 시장은 일부 설비·소재 수출이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화학 제품 부진으로 전체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반면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충남 수출시장의 다변화 가능성이 확인됐고 일본·대만 등 중견 아시아 시장도 회복세를 보였다.

도는 앞으로도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해 특정 산업·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전 세계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통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남 기업들은 주력 산업 경쟁력과 수출 다변화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해외시장 개척과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3일 ‘무공해자 보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현진 기자

이전·입주기업 종사자에 특별공급

10월 23일~11월 11일 신청·접수…근로자 주거 안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시 이전 또는 입주한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마련·시행 중이다.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의 경우 세종시 기업에 종사하면서 대전·세종·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고시일(2018.12.7) 이후 준공 또는 임대계약을 한 기업에 한한다.

공급 대상은 계룡건설㈜과 원건건설사(㈜ 등) 5·1 생활권 합강동 일원 L9 블록에 총 424세대를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에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은 8세대다.

세종시는 23일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공고문을 시청 누리집에 게시

하고 내달 11일까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자격 심사와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당첨·예비)는 11월 19일 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 종사자들이 직주근접의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기업 유치 활성화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단 내 입주업종(11종) 추가 ▲기존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 대상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확대 ▲기존 종사자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 등이다.

이채봉 기자

국내 최대 양자택 구축 본격 착수



대전시는 KAIST와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이하 개방형 양자택)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KAIST 이광형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KAIST 본원에서 ‘개방형 양자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한 필수 기반 시설인 ‘개방형 양자택’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KAIST ‘개방형 양자택’ 구축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양자택 건립과 양자 인프라 시설 및 장비 구축을 포함한 사업으로, 2031년까지 국비 234억 원, 시비 200억 원, 카이스트 자부담 17억 원 등 총 45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양자 전용 공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를 구비하여, 수준 높은 공정 환경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개

방형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은 KAIST 본원 내 미래융합소자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신축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준공 이후에는 KAIST가 운영을 맡는다.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시 제정을 투입하는 만큼, 지역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연계 중심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화 기반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광형 총장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대한민국 양자 생태계의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 기술을 통한 미래 산업 선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원도심 상생주차장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중기부 사업변경 승인 위한 상인설득에 시가 적극 나서야…절차 남아 있어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가 지연되고 있는 원도심 상생주차장건립과 관련,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주차장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중구에 따르면, 착공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변경승인과 설계 용역 완료, 지장물 보상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올해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대전시가 사업부지를 지하에서 지상 공원(대흥여린이공원)으로 바꾸고, 중기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새로운 타당성조사 실시와 상인동의 등의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타당성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상인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대전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하상가 상인회 설득에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상인회는 당초 지하상가와 직접 연결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던 사업이 공원부지로 변경된 만큼, 지하상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 보강 및 상권활성과 계획, 주차장 운영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도 지난달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지하상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다.

중구는 연내 사업변경 승인을 받더라도 설계용역이 내년 4월에 마무리되고, 이후 공원 내 민간소유 건물 보상을 마쳐야 해서 상반기 중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부지가 변경되면서 타당성조사와 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실상 새로운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왔다”며, “구 차원에서 상인분들에게 사업 변경 취지를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업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시와 구, 지역 상인회 및 주민 등 모두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중구는 사업 시행자로서 대전시와 협력을 강화해 상생 주차장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요령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을 안내했다.

이채봉 기자

